

## 해외 업계 소식

### IBM 데스크톱 PC 생산 아웃소싱

IBM이 미국과 유럽의 PC 생산부문을 산미나-SCI에 매각하기로 했다.

IBM은 PC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PC 디자인과 데스크톱 PC의 판매, 그리고 랩톱 컴퓨터 생산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웃소싱은 IBM의 PC 사업이 얼마나 쇠락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IBM PC는 1981년 처음 시장에 나온 뒤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세계 PC 시장에서 95%를 IBM PC 호환 기종이 차지하고 있다.

IBM은 이번 조치에 따라 노스 캐롤라이나주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스코틀랜드 그린록에 있는 PC 제조 부문을 산미나-SCI에 매각하며 산미나-SCI는 3년간 50억달러의 계약 조건으로 PC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현재 PC에서 손실을 내고 있지만 전체 연간 매출의 15%인 120억 달러를 컴퓨터 제조에서 벌고 있다. IBM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형 컴퓨터 판매에서 올리고 있으며 컴퓨터 제조에서는 랩톱인 싱크패드만이 수익을 내고 있다.

IBM은 PC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에 밀리면서 금융시장으로부터 PC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나 IBM은 PC는 기업 고객에게 대형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꼭 필요하며 PC 생산을 고집해 왔다.

IBM은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3.0이 IBM의 OS/2를 앞지른 뒤 PC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잃었으며 1994년에는 PC 시장 점유율에서도 컴팩 컴퓨터에 뒤지기시작해 2001년

1·4분기부터 3·4분기에는 5.4%의 점유율로 델과 컴팩, 휴렛팩커드에 이어 4위를 머물렀다.

IBM은 멕시코 과달라하라공장에서 싱크패드 랩톱컴퓨터를 계속 생산하고 PC도 아시아시장을 목표로 중국에서 계속 생산할 계획이다.

IBM은 PC 생산부문 매각으로 엔지니어와 판매 사원, 고객지원 인력 등 PC 부문인력이 8천 700명으로 감축되며 980명의 근로자가 산미나-SCI로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로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지는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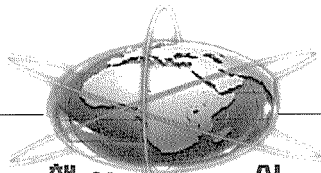
### 중국 올해 반도체시장 매출 10% 성장 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두자릿수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파운드리업체의 선두주자격인 상하이 화홍 NEC 일렉트로닉스의 오타 도시오 전무이사는 캘리포니아주 페비치에서 열린 국제반도체산업 전략 심포지엄에서 올해 중국 반도체시장의 매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가 앞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5~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더 긍정적이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와 PC, 가전 제품 등의 생산기지가 속속 중국내에 설립됨에 따라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8천900만명이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오는 2005년께 모두 3억명에 달할 것이



## 해외 업계 소식

라고 내다봤다.

상하이 화홍NEC 일렉트로닉스는 중국정부와 일본 NEC의 합작사이다.

### 日기업, 세계 최소형 모터 개발

일본의 소형 정밀부품 회사인 '시코 기연'이 직경 3.2mm, 무게 0.31g짜리 세계 최경량 모터를 개발했다.

1분간 약 1만 회전을 하도록 철과 텅스텐으로 제작된 이 소형 모터는 휴대전화의 진동장치나 디지털 카메라의 자동 초점 장치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회사는 7년 전 직경 4mm, 무게 0.75g 짜리 모터를 만들어 세계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깼다

### 팜, 블루투스 제품 개발 박차

세계적인 휴대용 컴퓨터 업체인 미국의 팜(Palm)이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팜의 운영시스템 사업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손쉽게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PDA 등 자사의 휴대용 컴퓨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출시했다.

이에 앞서 팜의 제조 사업부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02' 행사에서 블루투스 칩 업체인 브로드컴으로부터 향후 팜이 출시할 휴대용 제품에 사용될 블루투스 무선 칩을 구입키

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팜은 다른 휴대용 컴퓨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SDK 출시를 계기로 블루투스 제품의 상용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블루투스 기술이 휴대용 컴퓨터 제품 사용자들에게 무선으로 휴대폰과 프린터, 팜 컴퓨터 등 다른 제품들과 접속해 인터넷 서핑과 문서작업 공유,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비디오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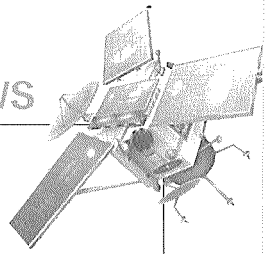
한편 블루투스 마케팅 그룹의 회장 마이클 맥커먼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비슷한 발표를 한 후 나온 이번 팜의 발표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블루투스 기술 채택을 촉진할 중요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전 휴대용 컴퓨터 제품에 장착될 자사의 운영시스템에 블루투스 지원 기능을 추가했으며 앞으로 올 여름까지 윈도우XP에도 동일한 지원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샤프, 올해 LCD부문 사상 최고 매출 전망

대형 사이즈 LCD패널 생산에 주력해왔던 일본 샤프전자가 중 소형 LCD 패널 생산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17일 국제 LCD 업계에 따르면 샤프전자는 현재 대형 TFT-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미공장의 2D 생산라인을 중 소형 제품 체



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TFT LCD를 생산하고 있는 덴리 NF1 공장에서도 CG-실리콘 기술에 기반한 중소형 TFT LCD 생산라인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샤프전자는 이를 위해 이미 NF1 공장에 85억 엔을 투입했으며 오는 가을까지 생산 개편 완료를 목표로 추가로 200억엔을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샤프전자는 현재 대형 TFT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2C와 2D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에 4천145억엔에 달하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일본기업, 휴대용 초소형 연료 전지 개발

일본 도시바(東芝)와 히타치(日立)는 노트북 컴퓨터 등 휴대 기기용 초소형 연료 전지를 잇따라 개발, 빠르면 내년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는 충전식에 비해 소형화는 어렵지만 사용 시간이 길고 경량화가 쉬우며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도시바가 이번에 휴대 정보 단말(PDA)용으로 시험 제작한 연료 전지는 최대 출력이 8W로, 4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시제품의 두께는 25mm, 무게는 500g이나 앞으로 소형, 경량화를 통해 두께와 무게를 각각 5mm, 100g 이하로 끌어 내린다는 계획이다.

연료 전지는 당초 환경을 고려한 자동차용 전원 등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초소형 연료 전지 개발로 휴대 기기 등 정보 기

술(IT) 분야에서의 보급이 선행될 전망이다.

### 중국-올해 전자부품산업 전망

올해 중국 전자부품 산업은 지난해보다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중국 전자정보업계는 올해 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화폐정책 및 지속적인 내수 확장, 인프라 구축 가속화 등에 힘입어 국내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 전자정보 제품 제조기지로 부상하면서 전자정보제품 생산규모면에서도 세계 선두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TV 등 전자정보제품 무역마찰 해소에 유리할 뿐 아니라 외산 수입에도 유리하다.

중국에서는 이동통신산업이 급부상하고 모바일 사용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교환기, 기지국 및 휴대폰 생산 시장은 밝다. 다양한 유형을 띤 정보화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 구축,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 확산, 교육 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제품 시장은 안정된 성장세를 확보하면서 전자정보 제품 생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전제품은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전자부품의 경우 전자제품시장 성장과 함께 성장하면서 수출이 지난해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자부품은 수요 증가로 무역적자가 더 커지고 신형 부품 및 중·고급 제품의 수입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전자정보제품 제조산업 생산규모는 1만 6500억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22.2%, 판매수익



## 해외 업계 소식

은 9000억위안으로 20% 성장하며 휴대폰은 9000만~1억대, 컴퓨터는 1200만대, 고정교환기와 이동교환기는 1억2000만대, 컬러TV는 3500만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전자부품은 총 2416억개, 반도체 부품은 355억개가 생산되고 브라운관 등 진공기기 부품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자빔 기기 생산규모는 5900만개로 예상되고 있다.

### 英정부, 데스크톱 OS로 '리눅스' 채택 검토

영국에서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반 MS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눅스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IDG에 따르면 영국의 조달청(OGC)과 지방의 IT관련 공무원 단체인 정보기술관리협회(SOCITM) 등이 MS와의 라이선스 갱신에 어려움을 겪자 리눅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특히 경찰 및 사법당국에 IT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찰정보기술기구(PITO)의 경우 리눅스 채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PITO의 대변인인 이사벨 데이비스는 "PITO는 저렴한 비용, 안정성, 보안,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조직의 6만여대 데스크톱에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ITO는 이를 위해 사용자 단체 연합인 넷프로젝트와 계약을 맺고 리눅스의 가용성 테스트에 들어가 오는 3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넷프로젝트측은 리눅스가 스마트카드나 생체인식 등의 사용자 인증 기술을 이용해 고도의 보안을 갖출 수 있는데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지역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넷프로젝트는 PITO의 수많은 윈도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리눅스로 이식하는 전략과 소프트웨어 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